

“몸 상태? 돈 워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이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밀러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더블헤더(DH) 1차전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빈 선발 복귀 순위싸움 ‘천군만마’



지난주 대타로 나와 워밍업 최원준과 테이블세터 호플 KIA, 초반부터 승기 잡기 전략

김광현 밀워키전 7이닝 6K 무실점...부상 후 13일만의 복귀전 완벽투 24이닝 연속 비자책·방어율 0.63...데뷔 후 5경기 평균자책점 ML 2위 팀은 역전패 해 3승은 무산...구단, SNS에 “올해의 신인왕?” 문구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입성한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경이적인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다.

김광현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 파크에서 열린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김광현은 팀 타선이 터지지 않아 역전패하는 바람에 시즌 3승이 무산됐으나 메이저리그 진출 후 개인

한 경기 최다 이닝과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다.

선발로 4경기 연속이자 24이닝 연속 비자책 행진을 이어간 김광현은 평균자책점을 0.83에서 더욱 0.63으로 낮췄다.

선발로 등판한 5경기에선 평균자책점 0.33의 압도적인 성적을 올렸다. 가히 ‘역대급’ 평균자책점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32세 메이저리그 신인 김광현이 오늘 7이닝 무실점 투구로 첫 5경기 선발 등판에서 평균자책점 0.33을 기록했다”며 “이

는 평균자책점을 공식 집계한 1913년 이후 역대 2위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이 부문 1위 기록은 1981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뛰던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0.20이다.

1980년 다저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발렌수엘라는 첫해 구원 투수로만 10경기에 등판했다.

이듬해 선발로 변신한 발렌수엘라는 첫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20을 기록한 뒤 13승 7패, 평균자책점 2.48로 시즌을 마치고 그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과 신인왕을 석권했다.

김광현은 발렌수엘라에 이어 세인트루이스 구단 영구 결번의 주인공인 밥 김슨도 소환했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매체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처’는 “선발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투구하며 자책점을 기록하지 않은 세인트루이스 투수는

김광현이 1968년 김슨에 이어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슨은 1968년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그해 34경기에 나선 김슨은 22승 9패 평균자책점 1.12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사이영상을 동시에 받았다. 김슨은 1981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고, 등 번호 45번은 세인트루이스의 영구결번으로 지정됐다. 애덤 웨인라이트, 크리스 카펜터 등 구단을 대표하는 에이스들도 달성하지 못했던 기록을 ‘베테랑 신인’ 김광현이 해낸 셈이다.

김광현의 눈부신 활약에 매료된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지원사격에 나섰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이날 경기 후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김광현의 눈부신 기록과 함께 “올해의 신인왕?”이라는 짧은 문구를 남겼다.

/연합뉴스



고영창

내일은 특급 불펜 ‘Go~ 영창’



지난해 KIA 필승조로 54이닝...막강 불펜 든든한 조력
올 하준영 이탈·문경찬 이적 공백 배우며 마당쇠 역할
“올 시즌 겨울야구 목표...후배들에게 귀감 되고 싶다”

KIA 타이거즈의 고영창이 마운드 조연으로 ‘막판 스피드’를 준비한다.

지난해 KIA는 박준표-하준영-전상현-문경찬으로 구성된 ‘박하전문’이라는 특급 불펜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의 안정감 있는 활약 뒤에는 고영창의 조력이 있었다. 사실상 자신의 데뷔시즌이었던 지난해 위력적인 투수로 필승조로 역할을 하면서 54이닝을 책임져왔다.

올 시즌 KIA의 불펜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하준영이 수술로 이탈했고, 문경찬이 트레이드를 통해 NC로 이적했다. 지난 8월 4일 박준표까지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빠지면서 전상현 홀로 자리를 지켰다. 9월 13일 NC전을 통해 박준표가 복귀하자 이번에는 전상현이 어깨 염증으로 임시 휴업 상태가 됐다.

해체된 ‘박하전문’에 고영창도 올 시즌 기록을 보이면서 불펜에서 새로운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위력 그대로 고영창은 불펜에 없어서는 안 될 ‘마당쇠’ 역할을 해주고 있다.

고영창은 15일 경기 전까지 35경기에 나와 43이닝을 던졌다. 셋업에서 마무리로 승격한 전상현의 45이닝(44경기)에 이어 불펜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닝이다.

1이닝 이상을 소화한 경우도 9경기에 이른다. 고영창은 묵묵히 이닝을 책임지면서 매끄러운 불펜 운영에 역할을 하고 있다.

고영창은 “작년에는 이기고 있을 때 많이 나가고 힘든 줄 몰랐는데 올해는 (이런 역할이) 더 힘든 것

같다”며 “언제 나갈지 모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짧게 끊어줘야 하고 또다른 시점에는 길게 가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가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많이 못 나가고 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 기회가 오면 잘 던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늦은 개막과 빠듯한 일정, 그리고 예측불허의 날씨가 불펜진에는 큰 어려움. 지난해에 이어 ‘8월’ 고비를 넘지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아쉬움이다.

고영창은 “올해는 더블헤더에다 월요일 안 쉬는 날도 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날씨도 왔다갔다하고 그라운드 안 좋을 때도 시합을 해야 하니까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작년에는 8월에 안 좋았는데 여름에 약한 것 같다. 초반에는 볼 스피드도 괜찮게 나왔는데 후반가면서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가 숙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고영창에게는 ‘겨울야구’와 ‘후배’들이라는 동기가 부여가 있다.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로 포스트시즌을 통해 늦게까지 야구를 하는 게 고영창의 바람이다.

고영창은 “계속 쳐져있을 수 없고 힘내서 겨울 야구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며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도 많다. 다 열심히 하고 착해서 나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된다. 후배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열심히 한다. 선배로서 못하면 창피하니까 안 처지고 잘 하려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가 ‘김선빈 선발’ 카드로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다.

KIA 윌리엄스 감독은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K와이브스와의 홈경기를 통해 김선빈을 선발 라인업에 복귀시켰다.

김선빈은 지난 9월 6일 엔트리에 재등록된 뒤 두 차례 대타로 나와 벤치에서 워밍업을 했었다.

앞선 김선빈은 8월 11일 LG와의 원정경기 다음 날 시즌 세 번째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같은 왼쪽 허벅지 부위가 문제였다.

부상이 연이어 재발하자 이번에는 윌리엄스 감독이 선발 복귀까지 신중을 기했다.

퓨처스리그와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을 소화하게 했고, 풀업 뒤에도 대타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완벽한 몸상태에 집중했다.

그리고 15일 마침내 순위 싸움을 위해 김선빈 선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최원준을 톱타자로 해 ‘강한 2번’ 김선빈으로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그리고 타선의 주축 선수들을 한 자리씩 뒤로 밀어 터커-최형우-나지완으로 막강 클린업 트리오를 구축했다.

불펜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KIA가 1회부터 확실하게 공세를 펼치면서 승기를 잡기 위한 ‘선공격’ 전략이다.

한층 강력해진 화력으로 뒷문 약점을 지우고 KIA가 5위를 넘어 4위까지 넘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1일 어깨 급성 염증으로 엔트리에 빠진 마무리 전상현은 16일 상태를 점검한 뒤 복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전상현은 15일 1군 선수단에서 훈련은 진행했지만, 워밍업 전 미세한 통증이 남아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몸 풀 때 약간 통증이 있는 편이다. 몸이 풀리면 던질 때 괜찮다. 내일 상태 체크해보려고 한다”며 전상현의 상태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